

독성학 활용 공산품 유해물질 관리

지식경제부가 공산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주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독성학 관련 학계와 관련기업, 시험기관 등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산품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1월3일 발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산품, 식품, 의약품, 환경매체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평가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산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독성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새집증후군,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안전성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Phthalate)계 가소제 함유제품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기초학문을 제품 안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성학 관련 전문가들과 유해물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11/03>